

군수공장의 대변신... 예술혼 숨쉬는 베이징 문화 허브로

■ 베이징 다산즈 798 예술특구

베이징의 봄을 먼저 맞이하고 싶다면 다산즈 798 예술특구(이하 798 예술특구)로 가라는 말이 있다. 일년 내내 화려한 예술작품들이 내뿜는 뜨거운 에너지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798예술특구에 들어서자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래피티(간물 벽에 낙서나 스프레이로 그린 그림)들이 시선을 끈다. 마침 예술특구 입구엔 봄나들이를 나온 듯한 젊은 남녀가 그래피티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느라 여념이 없다.

글·사진=베이징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예술특구의 정문에서 중심대로를 걷다 보면 양쪽에 낡은 단층 공장건물들이 길게 늘어져 있다. 대부분의 건물외부는 낡은 적벽돌인 데다 내부 역시 노후화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 예술특구라는 말이 그리 실감나지 않는다. 게다가 시선을 위로 향하면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굴뚝과 대형 공장용 파이프라인이 철거되지 않은 채 시야를 가려 공장지대인지, 예술단지인지 혼동스럽기까지 하다.

798 예술특구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산업과 예술이라는 이질적인 조합이 빚어낸 독특한 아우라는 예술가와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는 원천이다. 실제로 많은 갤러리들이 이러한 공장의 거친 이미지를 그대로 살리면서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공장 내부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개조한 카페와 예술가들의 '신상'(새로 제작한 아트상품)을 판매하는 아트숍에는 연중 관광객들로 북적거린다.

현재 이 지역에만 약 400여 개의 화랑과 갤러리, 카페, 아트숍 등이 들어서 있다고 한다. 이들을 찬찬히 둘러 보는 데만 반나절 이상이 걸릴 만큼 볼거리가 풍성하다. 수십 여 개의 갤러리에 서 열리는 다양한 전시회는 물론 거리 곳곳에 설치된 다양한 조각품과 설치조형물은 현대 미술의 강국으로 떠오른 베이징의 진가를 유감없이 드러낸다. 이 때문에 최근엔 만리장성, 자금성에 이어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제3의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한해 방문객만 약 80만 여 명에 이른다.

798 예술특구는 베이징 동북부의 차오양구 다산즈(大山子) 지역에 자리한 60만㎡ 규모의 거대한 문화벨트다. 원래는 원자폭탄과 인공위성 부품 등 군수품을 만들던 공장 지역으로, 1954년 구 소련이 건설을 지원하고 구 동독이 설계한 공업 중심지였다.

당시 이 프로젝트의 설계에만 100여 명의 동독 건축가들이 참여했다. 4년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1958년 완공된 총 22동의 건물은 대부분 군수공장이었던 까닭에 별도의 명칭도 없이 단순하게 706, 707, 718, 751, 798이란 번호로 불렸다. 798 예술특구라는 명칭 역시 예술가들이 처음 '동지'를 뜻 하는 '798' 공장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공장 준공 이후 마오쩌둥(毛澤東) 국가 주석으로부터 휘호를 받았을 때 당시 노동자들의 사기와 자부심을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 798 예술특구의 거점공간이 된 798 스페이스 갤러리에 그 시절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슬로건이 그대로 남아있다.

아이러니컬 하게도 동서의 냉전 종식은 798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됐다. 동유럽의 지원으로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생산했지만 냉전이 끝난 이후 무기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70% 이상의 공장이 가동을 멈춘 것이다.

하지만 기계가 멈춘 공단에 눈을 돌린 건 예술가들이었다. 90년 대 중반 이후 중국 정부의 탄압에 밀려 베이징 시 외곽에서 작업하던 현대미술가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빈 공장으로 하나 둘씩 찾아들기 시작했다. 특히 이 시기는 해외에서 활동하던 중국의 아티스트들이 개혁의 바람을 타고 속속 귀국하던 무렵으로 작업공간을 물색

400여개 화랑·갤러리·아트숍...

한 해 방문객만 80만명 달해

만리장성·자금성 이은 명소로

가난한 예술가들의 자생 공간

다양한 콘텐츠·프로그램 강점

치솟은 임대료 상업화 그늘도

하던 이들의 눈에 798예술특구는 최적의 환경이었다.

이처럼 798예술특구는 자생적인 공간이었다. 설치예술가 황루이와 조각가 수이젠잉 중앙미술학원 교수가 터를 닦으면서 젊은 예술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한 것. 여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영향이 컸지만 인근의 중앙미술학원의 '후광효과'도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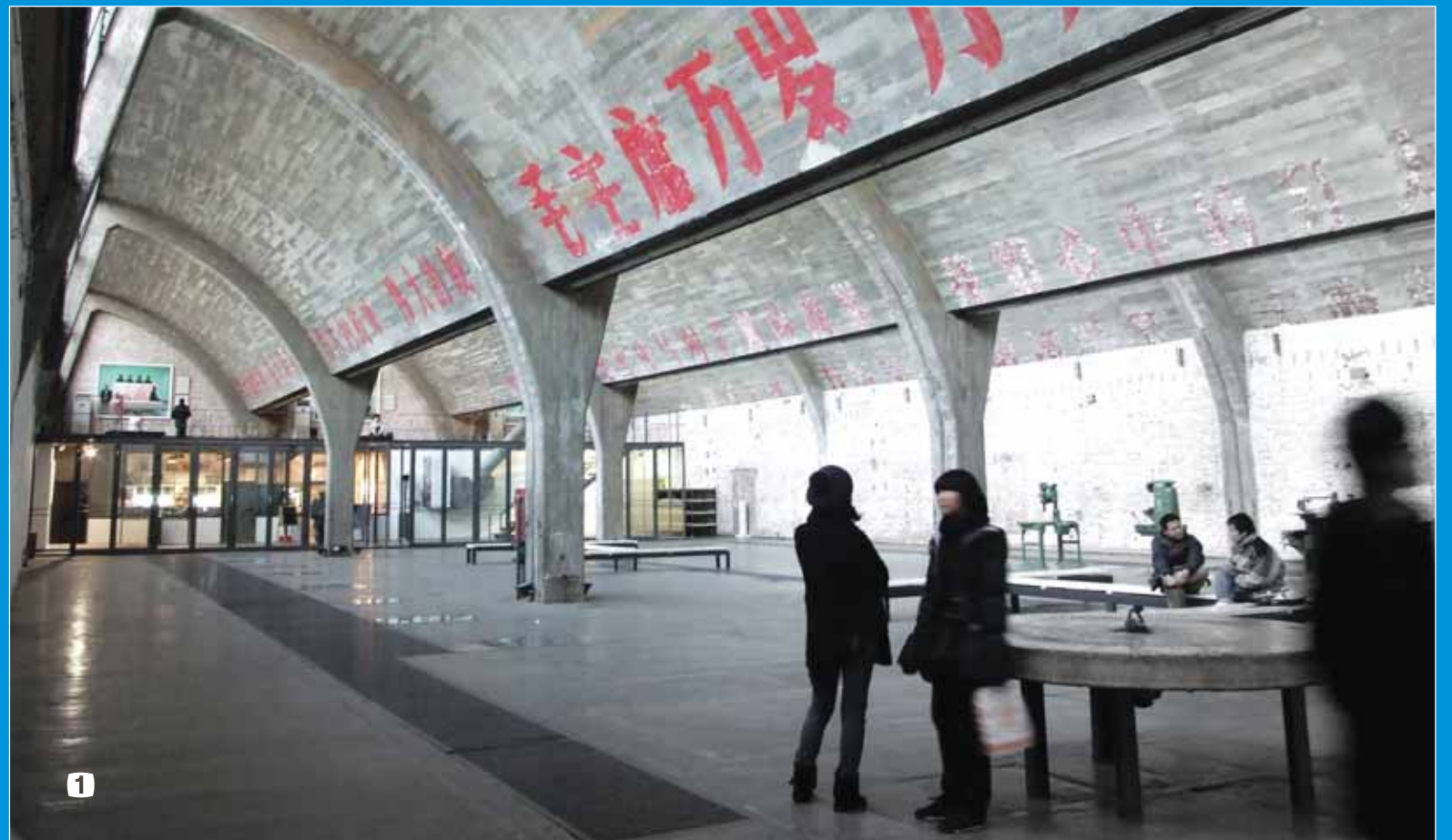
다산즈에서 자동차로 10분정도 거리에 위치한 중앙미술학원은 중국 최고의 미술학교로 798예술특구와의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중앙미술학원은 798 예술특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커리큘럼을 보완해가는 한편 798예술특구는 학교로 부터 젊은 예술가들을 수월한 공공관계에 있는 것이다. 798예술특구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의 '집단 이주'가 두드러졌다.

특히 지난 2003년 베이징 비엔날레, 2004년 제1회 다산즈 국제미술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특수 등을 통해 세계 미술계에 이름을 알리면서 798 예술구는 타임, 뉴스위크, 포춘지 등에 세계에서 가장 문화적 상징성과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은 798 예술특구의 강점이다. 그림이나 사진 전시회 이외에도 끼가 넘치는 방문객들이 798 예술거리를 찾아 기묘한 행위예술을 선보이고 관객들이 직접 창작 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 단순히 눈으로만 즐기는 감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798 예술특구에도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예술가와 외국의 유명 갤러리들이 몰려 들면서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뛰어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난한 예술가들은 또 다시 베이징 외곽으로 흩어졌고 그들의 빈 자리는 관광객을 겨냥한 고급 카페와 레스토랑이 들어섰다. 급속한 상업화로 인해 다산즈는 이름뿐인 예술특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98 예술특구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무엇보다 예술은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화이트큐브에 존재한다는 고정관념을 깬 것이다. 작업장과 전시장의 경계를 뛰어넘는 798 예술특구를 대체할 중국 현대미술의 발신지는 당분간 찾아보기 힘들다. 798예술특구가 베이징의 제1 문화브랜드로 떠오르게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jhpark@kwangju.co.kr



1 798 예술특구의 랜드마크인 798 스페이스 갤러리 내부 모습. 과거 군수공장이었던 이 건물의 천장에는 '마오 주석 만만세'(毛主席 萬歲 萬萬歲)라는 슬로건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2 3 400여 개의 갤러리와 화랑, 아트숍들이 들어서 있는 798 예술특구에서는 다양한 설치작품을 만날 수 있다.

4 798 예술특구를 걷다 보면 대형 공장 파이프 라인과 장비들이 철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어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태리가구

명품소파

던롭침대

가구빌딩

홍스게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